

2017년 지방직 한국사 단원별 출제 문항 분석표

	한국사 바른 이해	선사 시대~국가 형성	정치사
2016	0	1	7
2017	0	2	5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2016	3	2	2
2017	3	2	2
	근대 사회 전개	민족 독립 운동	현대 사회 발전
2016	2	2	1
2017	2	1	3

문 1. 한반도 선사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① 구석기 시대 전기에는 주먹도끼와 스펀저돌개 등이 사용되었다.
- ② 신석기 시대 집터는 대부분 움집으로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다.
- ③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조개류를 많이 먹었으며, 때로는 장식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 ④ 청동기 시대의 전형적인 유물로는 비파형 동검·붉은 간토기·반달돌칼·흙자귀 등이 있다.

[정답] ①

[문제 분석]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는 편석기를 사용한 시대로서,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라 전기(하나의 커다란 석기를 만들어 여러 용도에 쓴 주먹도끼, 찌개 등이 주로 제작), 중기, 후기(대표적인 석기로 사냥 도구인 스펀저돌개를 사용)의 세 시기로 나누어진다.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 전기부터 사용한 도구이다. 그러나 ‘스펀저돌개’는 구석기 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석기이다.

[정답 찾기]

① 주먹도끼는 짐승 사냥하고 가죽을 벗기며, 땅을 파서 풀이나 나무뿌리를 캐는 등 여러 용도에 사용하는 만능 석기로 구석기 시대 전기에 주로 이용되었다. 스펀저돌개는 주로 구석기 시대 후기에 사용되었는데, 스펀(자루 속에 박히는 부분)이 달린 찌르개로서, 창을 기능하였다.

[오답 분석]

- ② 신석기 시대 집터는 대부분 움집으로,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다.
- ③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조개류를 많이 먹었으며, 때로는 장식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 사실은 부산 동삼동의 조개더미(패총, 貝塚)와 여기에서 발견된 조개껍데기 가면(패면, 貝面)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청동기 시대의 동검은 비파형 동검(요령식 동검)이고, 대표적인 토기는 붉은 간토기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이며, 대표적인 석제 농기구는 반달돌칼 바퀴날 도끼 흙자귀(유구석부)이다. 또한, 거친무늬 거울과 고인돌 등도 청동기 시대 유물이다.

문 2. 다음 자료를 쓴 역사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심적 활동의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의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니라.

- ① ‘5천 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글을 동아일보에 연재하여 민족 정신을 고취하였다.
- ② 『조선사회경제사』를 저술하여 세계사적 보편성 속에서 한국사를 해석하였다.
- ③ 을지문덕, 최영, 이순신 등 애국 명장의 전기를 써서 애국심을 고취하였다.
- ④ 『여유당전서』를 발간하여 조선 후기 실학자들을 재평가하였다.

[정답] ③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조선상고사』에서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의 기록’으로 묘사한 신채호(1880~1936)이다.

[정답 찾기]

③ 신채호는 한말에 『을지문덕전』, 『최도통전(최영 전기)』, 『이순신전』, 『강감찬전』 등 우리 역사상 외국의 침략에 대항하여 승리한 영웅들의 전기를 써서 널리 보급시킴으로써 일본의 침략에 직면한 국민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오답 분석]

- ① 정인보는 ‘5천 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글을 동아일보에 연재하여 조선 역사는 곧 한민족의 ‘얼의 역사’임을 강조하며 민족 정신을 고취하였다.
- ② 백남운은 『조선사회경제사』를 저술하여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에 입각하여 발전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식민주의 사관의 정체성론을 반박하였다.
- ④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등은 1934년에 정약용 서거 99주기를 맞아 『여유당전서』를 발간하면서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여 조선 후기 실학자들을 재평가하였다.

문 3. 군사 제도가 실시된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중앙	지방
ㄱ	9서당	10정
ㄴ	5위	진관 체제
ㄷ	5군영	속오군
ㄹ	2군 6위	주현군과 주진군

-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ㄱ → ㄷ → ㄴ → ㄷ
- ③ ㄴ → ㄱ → ㄷ → ㄹ
- ④ ㄴ → ㄹ → ㄱ → ㄷ

[정답] ②

[문제 분석]

역대 중앙군과 지방군에 대한 문제이다.

[정답 찾기]

② ㄱ. (통일 신라) → ㄷ. (고려) → ㄴ. (조선 전기) → ㄷ. (조선 후기)의 순서로 변화하였다.

[오답 분석]

	중앙	지방
통일 신라 (신문왕)	9서당	10정
조선 전기 (세조)	5위	진관 체제
조선 후기 (양란 이후)	5군영	속오군
고려 전기	2군 6위	주현군과 주진군

문 4. (가), (나)의 특징을 가진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옷은 흰색을 숭상하며, 흰 베로 만든 큰 소매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족신을 신는다.
 (나) 부여의 별종(別種)이라 하는데, 말이나 풍속 따위는 부여와 많이 같지만 기질이나 옷차림이 다르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

- ① (가) - 혼인 풍속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 ② (나) - 제사장인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가 있었다.
- ③ (가) -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12배로 배상하게 하였다.
- ④ (나) - 단궁이라는 활과 과하마 반어피 등이 유명하였다.

[정답] ③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 (가) '흰 옷을 즐겨 입고, 흰 베로 만든 큰 소매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족신을 신는' 나라는 부여이다. (나) 부여족은 부여뿐만이 아니라, 고구려, 옥저, 동예도 만들었다. 특히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부여의 별종(別種)'으로 기록된 나라는 고구려이다. 이 책에서는 고구려를 '예부터 동이에서 전하는 말에 따라 부여와 다른 종[별종]이라고 여겨진다. 언어와 풍속은 대부분 부여와 같지만 성정, 기질, 의복은 다르다.'고 묘사하였다.

[정답 찾기]

③ 『삼국지』 위서 동이전 따르면 부여에는 도둑질한 자는 12배로 배상하게 하는 1책 12법이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고구려도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 12배로 배상하게 하였다

[오답 분석]

- ① 민며느리제는 옥저의 혼인 풍습이다
- ② 제사장인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가 있었던 나라는 삼한이다.
- ④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은 동예의 특산물이다.

문 5. 다음 글을 지은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

(가)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문(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文)
 (나) 대견훤기고려왕서(代甄萱寄高麗王書)
 (다) 낭원대사오진탑비명(郎圓大師悟眞塔碑銘)

- ① 당나라에 유학하여 빈공과(賓貢科)에 급제하였다.
- ② 신라뿐만 아니라 고려 왕조에서도 벼슬하였다.
- ③ 국립 교육기관인 태학(太學)에서 공부하였다.
- ④ 골품제를 비판하고 호족 억압을 주장하였다.

[정답] ①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 (가)의 성주사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문'은 4산비문의 하나로 신라 하대의 6두품인 최치원이 지었다. (나)의 '대견훤기고려왕서'는 견훤을 '대신'하여 고려왕 왕건에게 보낸 서신으로, 신라 하대(후삼국 시대)의 6두품인 최승우가 지었다. (다)의 보현사 '낭원대사오진탑비명'은 신라 하대~고려 초기의 6두품 출신 최연위가 지었다. 최치원, 최승우, 최연위는 모두 신라 하대의 6두품으로 소위, 신라의 '3최(3崔, 신라의 경주 최씨였던 세 사람)'라고 불리었다.

[정답 찾기]

① 최치원, 최승우, 최연위는 모두 신라 하대 6두품 출신으로, 골품제의 신분적 한계로 인해 당에 유학하여(도당 유학생) 당나라 빈공과에 합격하였다.

[오답 분석]

- ② 최치원은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여조를 올렸으나 시행되지 않자 은둔 생활을 하였고, 최승우와 최연위는 모두 반신라적인 모습을 지녔으나, 최승우는 견훤의 책사로 활약하였고, 최연위는 왕건의 책사로 활약하며 고려 왕조에서도 벼슬하였다. 최연위는 신라뿐만 아니라 고려 왕조에서도 벼슬하였으며, 그는 태조를 보필하며 유교 주의에 입각한 통치를 건의하였다. 그러나 최치원과 최승우는 그 사망한 때가 명확하지 않으나, 고려 왕조에서 벼슬을 하지는 않았다.
- ③ 고구려(소수림왕)의 국립 교육 기관인 태학(太學)에서 공부한 이들은 고구려의 귀족의 자제들이다. 신라는 통일 이후 신문왕 대 국립 교육 기관인 국학을 설립하였고, 경덕왕 대 한화 정책의 일환으로 태학감으로 개칭하였다가 이후, 혜공왕 대 다시 국학으로 환원되었다.
- ④ 신라 하대의 6두품은 골품제를 비판하였으나, 호족의 억압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신라 하대에 호족 세력과 연계하여 사회 개혁을 추구하며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데 앞장섰다.

문 6. 다음 밑줄 친 '대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 엔닌(圓仁)은 대사의 어진 덕을 입었기에 삼가 우러러 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당나라에 머물러 왔습니다. 부족한 이 사람은 다행히도 대사께서 발원하신 적산원(赤山院)에 머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경(感慶)한 마음을 달리 비교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 -

- ① 법화원을 건립하고 이를 지원하였다.
- ② 당나라에 가서 서주 무령군 소장이 되었다.
- ③ 회역사(廻易使), 견당매물사 등의 교역 사절을 파견하였다.
- ④ 응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켜 장안(長安)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정답] ④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일본 승려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당나라 기행문)』로, 밑줄 친 '대사'는 장보고이다. 장보고는 중국을 순례하던 중에 법화원에서 신세를 진 일본의 승려 엔닌에게 일본으로 돌아갈 배편을 구해 준 적이 있었다. '적산원(赤山院)'은 '법화원'의 다른 이름으로, 적산원(적산 법화원)은 장보고가 당의 산둥 반도에 세운 불교 사찰이다.

[정답 찾기]

④ 무열계 친골이었던 김헌창은 아버지 김주원이 원성왕에 밀려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다. 응주(응천주, 공주)를 근거지로 반란(822)을 일으켜 장안(長安)이라는 나라를 세운 인물은 신라 하대 헌덕왕 때 '응주(응천주) 도독 김헌창'이다.

[오답 분석]

- ① 장보고는 당시 신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산둥 반도의 적산에 법화원이라는 절을 짓고 이곳을 무역의 거점으로 삼았으며, 신라인의 친목과 단결, 안영을 꾀하는 정신적 위안처로 만들었다.
- ② 장보고는 청해진을 설치하기 이전에 당나라 서주(徐州)에 건너가 공을 세워 서주 절도사 휘하의 군관직인 '무령군 소장'이라는 직책을 맡기도 하였다.
- ③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청해진 대사가 된 이후 해적을 소탕하고, 서남부 해안의 해상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당에는 견당매물사(遣唐賣物使)를, 일본에는 회역사(廻易使)라는 이름 아래 교역(무역) 사절단을 파견하여 당-신라-일본을 연결하는 해상 무역을 주도하였다. 또한 그의 무역선을 교관선이라 일컬었다.

문 10.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

대의 무역이 발전하면서 예성강 어귀의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했으며, 대식국(大食國)으로 불리던 아라비아 상인들도 들어와 수은 향료 산호 등을 팔았다.

- ① 해동통보와 은병(銀瓶) 같은 화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 ② 인구 토지 면적 등을 기록한 장적(帳籍, 촌락 문서)이 작성되었다.
- ③ 개성의 송상은 전국에 송방(松房)이라는 지점을 개설해서 활동하였다.
- ④ 지방 장시의 객주와 여각은 상품의 매매뿐 아니라 숙박 창고 운송 업무까지 운영하였다.

[정답] ①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의 ‘예성강 어귀의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수은, 향료, 산호 등을 가져와서 팔았던’ 시기는 고려 시대이다.

[정답 찾기]

- ① 고려 시대 숙종 때는 삼한통보, 해동통보, 동국통보 등의 동전과 활구(은병, 銀瓶)라는 은전을 만들어 사용하였으나, 널리 유통되지는 못하였다.

[오답 분석]

- ② 통일 신라 시대(경덕왕 때 추정)에 인구, 토지 면적, 가축 수 등을 기록한 장적(帳籍, 촌락 문서), 즉 민정문서가 작성되었다.
- ③ 조선 후기 18세기 이후에 송상, 유상, 만상, 경강상인, 객주 여각 등의 사상(私商)이 성장하였는데, 개성의 송상은 전국에 송방(松房)이라는 지점을 개설해서 활동하였다.
- ④ 조선 후기 18세기 이후에 포구 상업이 발달하면서, 포구와 지방 장시의 객주와 여각은 상품의 매매뿐 아니라 숙박·창고·운송 업무까지 운영하였다

문 11. 조선 시대 도성 한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① 경복궁 근정전의 이름은 정도전이 지었다.
- ② 경복궁의 동쪽에 사직이, 서쪽에 종묘가 각각 배치되었다.
- ③ 유교 사상인 인·의·예·지 덕목을 담아 도성 4대문의 이름을 지었다.
- ④ 도성 밖 10리 안에는 개인의 무덤을 쓰거나 벌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다.

[정답] ②

[문제 분석]

조선 시대 한양 도성과 궁궐에 대해서 문제이다. 한양 도성은 풍수지리설의 남경(한양) 길지설에 입각하여 건설하였다.

[정답 찾기]

- ② 한양 도성의 건물 배치 기본 형식은 ‘좌묘우사 전조후시(左廟右社 前朝後市)’를 중요시하는 『주례(周禮)』에 입각하여, 경복궁의 왼쪽(동쪽)에는 종묘(宗廟), 오른쪽(서쪽)에는 사직단(社稷壇)을 각각 배치하였다.

[오답 분석]

- ① 정도전은 한양 도성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경복궁 내의 건물 배치까지 주도하였다. 도성 건설이 마무리된 후에는 경복궁의 근정전을 비롯한 궁궐의 전당과 도성의 성문의 이름과 한성부의 5부 52방의 이름을 지었다. 특히 경복궁의 이름은 정도전이 시경에 나오는 “이 미술에 취하고 이미 덕에 배부르니 군자 만년 그대의 큰 복을 도우리라.”에 서 큰 복을 빈다는 뜻의 ‘경복(景福)’이라는 두 글자를 따서 지은 것이다.

- ③ 한양 도성의 4대문은 정도전이 각각 유교의 오상(五常) 사상인 인(仁, 동) 의(義, 서) 예(禮, 남) 지(智, 북) 신(信, 중앙)의 덕목을 각각 담아, 흥인지문(興仁門, 동대문, 인), 돈의문(敦義門, 서대문, 의), 숭례문(崇禮門, 남대문, 예), 숙정문(肅淸門, 북대문, 지)을 두었고, 중앙에 보신각(普信閣)을 세웠다.

- ④ 한양 도성은 4대문을 기점으로 약 10리까지의 외곽 지역(성저십리(城底十里))은 일종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 지역 내에는 산림(山林)과 풍치(風致)의 보호를 목적으로 개인의 무덤을 쓰거나 벌채 채석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주택 건축도 금지하였다

문 12. 밑줄 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왕이 말했다. “나는 일찍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여러 해의 평균을 파악하고 답험(踏驗)의 폐단을 영원히 없애려고 해왔다. 신하들부터 백성까지 두루 물어보니 반대하는 사람은 적고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백성의 뜻도 알 수 있다.”

- ① 토지 소유자에게 수확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징수하였다.
- ② 토지 소유자에게 1결당 미곡 12두를 조세로 징수하였다.
- ③ 풍흉에 상관없이 1결당 4~6두를 조세로 징수하였다.
- ④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조세를 차등 징수하였다.

[정답] ④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세종실록』의 기록으로 세종이 답험(踏驗, 해당 연도의 작황(풍흉)에 따라 생산량의 1/10을 수취)의 폐단(매년 관리를 파견해야하는 행정상의 번거로움, 국가의 조세 수입이 일정하지 않음)을 없애기 위하여 공법(貢法)을 시행함으로써 토지의 등급을 나누어 수세할 것을 의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이다. 세종은 1428년부터 전세 제도의 전면 개혁을 위하여 공법이라는 새로운 정액 세법을 구상하기 시작하였으며, 1430년 17~18만 명에 이르는 전국 관민(고관~농민)의 여론을 수렴해 제도의 개선을 논의하였다. 공법 상정소와 전세 상정소를 거치면서 준비된 공법은 1444년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정답 찾기]

- ④ 공법의 시행으로 모든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1등전에서 6등전까지 6등급(전분 6등법)으로 구분하고, 풍흉(작황)에 따라 상상년에서 하하년까지 9등급(연분 9등법)으로 나누어 조세를 징수하였다. 결국,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기본 수세 단위인 결(結)의 실제 면적을 토지 등급마다 다르게 하여 조세를 차등 징수하고, 토지 1결당 풍흉에 따라 최고 20두에서 최저 4두까지 차등을 두어 조세를 징수하였다.

[오답 분석]

- ① 토지 소유자에게 수확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징수한 것은 공법 시행 이전에 국초 과전법 체제하에 해당한다.
- ② 토지 소유자에게 1결당 12두를 징수한 것은 조선 후기 공납 제도의 개편인 대동법에 해당한다.
- ③ 16세기 이후 양란을 거치며 농경지가 황폐화되고 극히 감소된 상태에서 토지 제도도 함께 문란해졌다. 이에 따라 연분 9등법 자체가 무시된 채 1결당 4~6두를 징수하는 것이 관행화되자, 인조는 이것을 법제화하여 전세를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미곡 4두~6두로 고정시킨 영정법을 실시하였다.

문 13. 다음 지시에 따라 실시된 제도로 옳은 것은 ?

왕이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령했다. “…… 호포(戶布)나 결포(結布) 모두 문제가 있다. 이제 1필을 줄이는 것으로 온전히 돌아갈 것이니 경들은 1 필을 줄였을 때 생기는 세입 감소분을 보충할 방법을 강구하라.”

- ① 지조법을 시행하고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하였다.
- ② 토산물로 징수하던 공물을 쌀이나 무명, 동전 등으로 통일하였다.
- ③ 황폐해진 농지를 개간하도록 권장하고 전국적인 양전 사업을 시행하였다.
- ④ 일부 양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다.

[정답] ④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양역(군역)을 2필에서 1필로 절반을 줄인 영조 때(1750) 시행된 균역 법이다.

[정답 찾기]

④ 양인에게 부과하던 군포의 액수를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이면서, 줄어든 군포 수입을 보완하기 위해 궁방이나 아문에 수취하던 각종 잡세(어 염 전세) 수입을 균역청에 예속시키고,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지역의 지주들에게 토지 1결당 2두의 결작을 부과하였다. 또한, 지방의 일부 상류층(토호, 부유한 양민 등)에게 선무군관(選武軍官)이라는 칭호를 주어 합법적으로 지위를 인정해 주고, 대신 1년에 군포 1필을 징수하였다. 선무군관포란 종래 토호, 부유한 양민으로 뇌물을 써서 교생(校生, 향교 학생), 원생(院生, 서원 학생)을 칭탁하여 군포를 부담하지 않고 있던 자를 선무군관이라 하여 합법적으로 지위를 인정해 주고, 그 대신 그들로부터 징수한 군포포를 말한다. 이들 선무군관에게는 매년 무과를 통해 합격자에게는 그 해의 선무군관포 부담을 감해 주기도 하였다. 선무군관포의 징수는 불법적으로 군포 면제의 혜택을 받아 온 일부 상류층(일부 양반의 신분을 얻은 이들도 있음)에게 군포를 징수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오답 분석]

- ① 지조법을 개혁하고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하고 주장은 갑신정변 때(1884) 당시 개화당이 주장한 개혁 정강 14개조의 내용 중 하나이다.
- ② 토산물로 징수하던 공물을 쌀이나 무명, 동전 등으로 통일한 제도는 조선 후기 공납 제도의 개편인 대동법이다.
- ③ 토지 개간 사업은 조선 전기 중농 정책의 일환이고, 양전 사업은 전세를 부과하기 위해 토지의 실제 크기와 경작자 등을 파악하던 일체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균역의 폐단을 줄이기 위한 균역법과 관련이 없다.

문 14. 임진 왜란의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①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조선은 훈련도감을 설치해 군대의 편제를 바꾸었다.
- ② 조선군은 명나라 지원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에게 뺏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 ③ 전세가 불리해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일본군이 철수함으로써 전란이 끝났다.
- ④ 첨사 정발은 부산포에서, 도순변사 신립은 상주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지만 패배하였다.

[정답] ④

[문제 분석]

1592년~1598년(선조)까지 7년간의 전쟁인 임진 왜란의 전개 과정에 대한 문제이다.

[정답 찾기]

④ 일본군과 상주에서 맞서 싸운 인물은 이일이다. 임진왜란 발발 직후(1592.4) 부산 첨사 정발이 부산포에서 동래성에서 동래 부사 송상현이 분전하였으나, 패하였다. 이러한 급보가 조정에 전해지자, 조정은 신립을 도순변사, 이일을 순변사에 임명하여 대비하였다. 하지만, 이일이 상주에서 왜군 가토 기요마사에게 패배하여 충주로 물러서고, 이일의 뒤를 이어 신립이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분패하였다.

[오답 분석]

- ① 훈련도감은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1593~1596) 사이인 1593년 10월(선조)에 유성룡의 건의 설립되었고, 속오법을 실시하여 지방군 편제를 개편하였다.
- ② 조명 연합군은 왜군에 빼앗겼던 평양성을 탈환(1593.1)하면서 전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 ③ 왜군이 재침한(정유재란) 1597년의 직산 전투와 명량대첩 이후 전세가 불리해진 왜군은 이듬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본국으로 철수였고, 이로 인해 7년간의 전쟁은 끝나게 되었다.

문 15. 우리나라 족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① 조선 시대에는 족보가 배우자를 구하거나 봉당을 구별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 ②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성종 7년에 간행된 『문화 류씨 가정보』이다.
- ③ 조선 초기의 족보는 친손과 외손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수록하였다.
- ④ 조선 후기에 부유한 농민들은 족보를 사거나 위조하기도 하였다.

[정답] ②

[문제 분석]

족보(族譜)는 양반 가문에서 가문의 내력을 기록한 것으로 대체로 조선 초기부터 제작되기 시작되었고, 조선 후기에는 더욱 확대되었다.

[정답 찾기]

②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조선 성종 7년(1476년)에 간행된 『안동 권씨 성화보』이다. 당시 중국 연호인 ‘성화’ 연간에 만들어진 것이라 해서 성화보라 부른다. 『문화 류씨 가정보』는 이보다 90년 뒤에(1565년, 중종 18년) 만들어진 족보이다.

[오답 분석]

- ① 조선 시대에는 족보를 통해 안으로는 종족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키고, 밖으로는 다른 종족이나 하급 신분에 대해서 문벌의 권위를 과시하는데 이용되었다. 또한, 족보는 결혼 상대자를 구하거나 봉당(朋黨)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 ③ 조선 초기(15세기) 족보는 친손과 외손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수록하였고, 자녀는 출생 순서에 따라 기록하였으며, 양자를 들인 기록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 ④ 조선 후기에는 부유한 농민들은 족보를 사거나 위조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신분을 상승시키기도 하였다.

문 16. 다음 (가)~(라)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가)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 (나)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각각 선거한다.
- (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 중임할 수 있다. 단,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라) 6년 임기의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된다.

- ① (가) - 남한과 북한은 함께 유엔에 가입하였다.
- ② (나) - 판문점에서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 ③ (다) -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다.
- ④ (라) - 민족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정답] ③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의 (가)는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는 제8차 개헌(1980.10, 전두환 정부 때(1981~1988))의 내용이다. (나)는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각각 선거한다.'는 '제헌 헌법(1948.7, 이승만 정부 때(1948~1952))'의 내용이다. (다)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 중임할 수 있다. 단,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의미로 제2차 개헌(1954, 사사오입 개헌, 이승만 정부 때(1954~1960))의 내용이다. (라)는 '6년 임기의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한다.'는 '제7차 개헌(1972.10, 유신 헌법, 박정희 정부 때(1972~1980.10))'의 내용이다.

[정답 찾기]

③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정당 등록이 취소된(진보당 사건) 것은 1958년으로, 이승만 정부 말기이다. 이 시기는 제2차 개헌(1954, 사사오입 개헌)과 제3차 개헌(1960) 사이이므로 제2차 개헌 헌법이 적용되는 시기이다.

[오답 분석]

- ① 남한과 북한은 함께 유엔에 가입한 것은 1991년으로, 노태우 정부 때이다. (가)~(라) 중 적합한 것이 없다. 9차 개헌 헌법(1987~현재)이 적용된 시기의 사실이다.
- ② 판문점에서 휴전 협정이 체결된 것은 1953년 7월으로, 이승만 정부 때이다. 이 시기는 제1차 개헌 헌법(발췌 개헌, 1952~1954)이 적용된 시기의 사실이다.
- ④ 민족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 성명(7 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된 때는 1972년으로, 박정희 정부 때이다. 제7차 개헌 헌법(유신 헌법)은 1972년 10월에 확정되었으며, 유신 헌법 개정 이전의 사실이다. 7 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던 7월에는 제6차 개헌 헌법(3선 개헌, 1969~1972.10)이 적용된 시기의 사실이다.

문 17. 다음 자료가 조선 조정에 소개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親中) 일본과 맺고(結日) 미국과 연합해(聯美) 자강을 도모하는 길 뿐이다.

- ① 육영공원(育英公院)을 설립해 서양의 새 학문을 교육했다.
- ② 임오군란이 일어나고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어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 ③ 개화파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 ④ 최익현은 일본과 통상을 반대하는 「오불가소(五不可疏)」를 올렸다.

[정답] ④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일본 주재 청국 공사관의 참찬관 황준센(황준현)이 쓴 『조선책략』으로 1880년 10월에 제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귀국하여 소개하였다.

[정답 찾기]

④ 최익현의 「오불가소」는 '1880년 이전'인 1876년에 올린 상소문이다. 최익현이 일본과 통상(개항)을 반대하는 「오불가소(五不可疏)」를 올린 것은 1876년 2월 강화도 조약이 체결 될 때의 사실이다. 「오불가소」는 개항 반대론으로 내용에 '왜양일체론'이 포함되어 있다.

[오답 분석]

- ① 육영 공원의 설립은 1886년의 사실이다.
- ② 임오군란의 결과로 체결된 제물포 조약은 1882년 8월의 사실이다.
- ③ 갑신정변은 1884년 10월의 사실이다.

문 18.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을 정립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은 삼균 제도(三均制度)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조들이 분명히 명한 바 「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하야 흥방보태평(興邦保泰平)하리라」 하였다. 이는 사회 각층 각급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향유를 균평하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保維)하려 함이니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理化世界)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 공리(公理)임

- ①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주장하였다.
- ② 제헌 국회 의원에 당선되었다.
- ③ 임시 정부의 국무 위원이었다.
- ④ 한국 독립당을 창당하였다.

[정답] ②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1941년 11월 25일에 발표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의 '제1장 강령'의 일부분이다. 임시 정부의 건국 강령은 강령을 기초한 조소앙의 삼균 주의(三均主義)에 바탕하고 있다.

[정답 찾기]

② 자료에 나타난 사상은 삼균주의이며, 이 사상을 정립한 인물은 조소앙(1887~1958)이다. 조소앙은 1948년 김구, 김규식 등과 함께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남북 협상에 참여하여 5 10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헌 국회 의원은 아니었다. 이후 1950년에 실시된 5·30 총선거에 당선되어 제2대 국회 의원에 당선되기도 하였으나, 1950년 6 25 전쟁으로 강제 납북되었다.

[오답 분석]

- ① 조소앙은 독립 운동 내부의 좌 우익 사상의 대립을 지양 종합하고, 이를 독립 운동의 기본 방략 및 미래 조국 건설의 지침으로 삼기 위해 삼균주의를 체계화하였다(1931년). 그는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균등 생활이라는 완전 균등을 대전제로 하면서, 이의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주장하였다.
- ③ 조소앙은 1930년 이동녕, 김구, 안창호 등의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과 함께 상하이에서 한국 독립당을 창당하였다. 1940년에 한국 국민당(김구), 한국 독립당(조소앙), 조선 혁명당(지청천)이 합당하여 한국 독립당을 창당하기도 하였다.
- ④ 조소앙은 임시 정부에 참여하여, 국무 위원에 선임되었고 이후 외교면에서 큰 활약을 하여 이후 임시 정부의 외무 부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문 19. 시대별 교육 문화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① 미군정기: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과 6-3-3학제가 도입되었다.
- ② 1950년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초등학교 의무 교육제가 시행되었다.
- ③ 1960년대: 입시 과열을 막기 위해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가 도입되었다.
- ④ 1970년대: 국가주의 이념을 강조한 국민 교육 현장이 제정되었다.

[정답] ④

[문제 분석]

우리나라 시대별 교육 문화의 변화에 대한 문제이다.

[정답 찾기]

④ 국가주의 이념을 강조한 ‘국민 교육 현장’은 1968년에 제정되었다(박정희 정부 때). 즉, 1970년대가 아닌 1960년대이다.

[오답 분석]

- ① 광복 후, 미 군정은 미국식 민주주의와 기능인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제도를 마련하고, 국립 대학을 설립하였다. 그 결과 교육 이념으로 홍익인간, 애국 정신, 민주 공민 육성이 채택되고, 미국식 6-3-3학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어(1946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 ② 이승만 정부 수립 직후부터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본격적으로 민족 교육 기반을 마련하려 하였고, 1950년에 초등학교 의무 교육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자녀가 만 6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했다.
- ③ 박정희 정부는 그 당시 국민학교까지 행하여졌던 과외를 없애기 위해서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를 1969년부터 서울에 도입하였고, 1971년에는 10개 도시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문 20.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 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 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 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 ① 이 법령에 따라 특별 재판부가 설치되었다.
- ② 이 법령의 제정은 제헌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었다.
- ③ 이 법령에 따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④ 이 법령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직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정답] ④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1948년 9월 22일에 제정된 반민족 행위 처벌법(반민법)이다 이 법령이 제정되고 곧이어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와 특별 재판부가 구성되었다

[정답 찾기]

④ 여수·순천 10·19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에 여수 주둔 국군 제 14연대가 제주도 4·3 항쟁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 (1948년 9월) 이후의 일이다. 여수·순천 10·19 사건 이후 제정된 법은 국가 보안법(1948. 12.)이다.

[오답 분석]

- 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를 설치하였고, 서울시 및 각 도에 조사부를, 군에 조사지부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재판할 특별 재판부와 특별 검찰부를 설치(1948.10)하였다.
- ② 제헌 헌법 101조에 따르면 “국회는 단기 4278(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제헌 국회는 반민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 ③ 반민특위에서는 조사 대상 682명 중 221명을 기소하고, 그 중 1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 유예 등으로 모두 풀려나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 반민특위 공소 시효가 만료(1949. 8.)되면서 해체되자 대부분이 석방되었다.